천년의 맛과 멋 전남
호남매일tv
E-mail. ko930112@naver.com

호남매일

광주시 북구 우치로 649(생용동)
시네마 파크 cinema park
www. cinemapark.kr
광주자동차극장
TEL : 062-575-5717~8

제 5371호 2000년 7월 25일 창사 homae.co.kr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음력 5월 2일)

광주시, 아동·청소년 시내버스 무료 도입하나

'어린이만' '어린이·청소년' 두가지 방안 비교 검토

"10억~110억 예산 소요…여러 측면 검토 뒤 결정"

광주시가 지역 어린이·청소년들의 시내버스 무상 이용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시내버스를 이용한 어린이·청소년은 하루 평균 3만3000여 명에 달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린이 만을 대상으로 한 무상 이용 방안, 어린이·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 이용 방안을 비교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시내버스 어린이 승객은 하루 평균 5000명, 청소년은 2만8000여 명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연간 수익은 어린이 승객 10억 원, 청소년 승객의 경우 90억~100억 원에 달했다.

광주시는 무상버스안을 도입할 경우 매년 적게는 10억 안팎, 많게는 110억이 넘는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4월 기준 광주지역 만 6~12세 어린이는 9만7000여 명, 만 13~17세 청소년은 7만1000여 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endemic) 시대를 맞아 향후 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정부 부처 또는 교육청 지원 방안 등 여러 측면을 충분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달 2일 광주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 관련 시정 질문에 "시와 시의회 간 통 큰 합의만 이뤄진다면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예산 100억 원은 크지 않다(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통 큰 합의만 된다면,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또는 무상교통에 준하는 정책은 가능할 것이다. (이번 시정질문을)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며 도입 의지를 피력했다.

/조선주 기자

광주서 모빌리티 등 통합전시회 2면
전남에 의대 신설해야 3면
전기료 등 인상부담 최소화 4면

광주전남 김대중재단 창립 18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에서 광주전남 김대중재단 창립대회가 열리고 있다. /재단 제공

광주전남 김대중재단 창립 대회… "철학·사상·지도이념 구현"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맞아 유산 계승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과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철학·사상의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광주전남 김대중재단'이 18일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창립대회에는 권노갑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임채정·문희상 전 국회의장,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이용득 전 한국노총위원장, 김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재단 부이사장과 3남 김홍걸 국회의원, 발기인 등이 참석했다.

광주·전남에서는 김영록 지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이명자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

최경주 광주전남 김대중재단 창립 추진위원회 운영집행위원장은 "내년 1월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 분의 철학과 사상, 지도이념을 구현하고 경제 위기, 남북의 평화 위기 등 총체적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재단이 태동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구선 재단 추진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생 동안 실천했던 평화, 인권, 화해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재단 창립대회를 시작으로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에 지회를 창립할 계획이다"며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전개하면서 김대중 정신 계승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노갑 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세우고 현실정치에서 실천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광주·전남에서 재단이 새롭게 태어난 것은 매우 뜻깊은 의의를 갖고 있다"며 "대통령 선양에 앞장 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김대중재단은 내년 1월 6일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을 비롯한 아카데미, 연구·봉사활동, 역사탐방, 국제연대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

"5·18헌법수록·국비 확보"…광주시-민주 광주시당 협력

시급한 현안 민주당 시당과 당·정 정책협의회 열어

광주시가 5·18 정신 헌법수록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요청했다.

광주시와 민주당 광주시당은 18일 오전 8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과 이병훈 시당위원장, 송갑석·이형석·이용빈·민형배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심철의 시의회 부의장과 김나윤·박필순 시의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시와 당 모두 논의안건의 중대함과 시급함을 고려, 휴일 아침 이른 회의를 진행했다.

강 시장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이날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을 위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노력하기로 했다.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제정 문제도 논의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과 마찬가지로, 동서화합의 상징인 달빛고속철도 건설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영호남 국회의원들이 협력해 공동 추진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적극 협의할 수 있도록 중앙당에 건의하기로 했다.

2024년 국비 지원사업도 건의했다.

광주산업의 중심축인 자동차산업과 인공지능(AI)산업을 위해 미래자동차 대전환 핵심부품 고도화 기술개발 및 실증,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고도화 지원, 철도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 호남권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디지털관 건립,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요청한 국비지원 사업은 총 22건이다.

이 밖에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강 시장은 시의 재정여건이 악화하는 추세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자동차 수요관리와 연계한 단계적 무상교통 도입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 탄소중립을 표방하는 광주시가 탄소중립 대중교통 시범도시사업으로 교육청과 협력,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 시장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정부는 안전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방안 등 만반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내외 경제 환경이 좋지 않아 광주시의 세수 감소가 현실화하고, 내년 국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비 재정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댈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하늘길에 이어 철길도 빠르게 열릴 수 있도록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제정에도 민주당이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병훈 민주당 시당위원장은 "공공요금 급등, 가계소득 감소,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 외교 연전연패 등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라며 "이 같은 때 민주당이 민생을 중점을 두고 광주가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오늘은 더 덥다…낮 최고기온 35도 '폭염주의보' 확대 전망

광주·전남 낮 최고 평균 27~34도…건강관리 주의

광주·전남에 올해 들어 처음 내려진 폭염특보가 이틀째 발효 중이어서 건강 관리와 함께 농·수·축산업 등 피해 예방이 요구된다.

18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담양에 발령된 폭염주의보가 이틀째 지속되고 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습도 등을 고려해 발령한다. 35도가 넘으면 폭염경보로 격상한다.

이날 광주·전남의 낮 최고기온은 평균 27~34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7시 기준 최저기온은 광주 21도, 여수 21.4도 목포 20.5도, 장성 17.6도 등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으나 광주·전남은 발생하지 않았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낮 기온이 올라 덥겠으며, 오는 20일 오후부터 광주·전남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권형안 기자